

시골뜨기들의 우연한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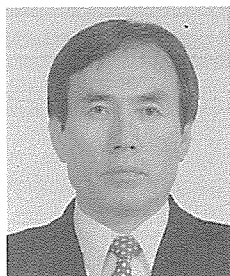
북한과 연고없는 '북한연구자'

필자가 지난 9월 중순 2주간의 북한 농촌지역을 살살이 돌아보면서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현 북한의 도시나 농촌의 생활정도가 흡사 우리나라의 50년대를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무척 착잡하고 당황하였다. 북한의 어린 아이들의 표정이나 행동 하나 하나에서부터 북한 주민들의 하루 하루 생활이 마치 못 해 살아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어린 아이들이나 군인들조차 한결같이 몸체나 키가 비슷하여 만약 이들을 함께 발가벗겨 놓으면 누가 군인이고 어린아이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농업연구에 흥미 못느껴

그러한 모습들이 50년대 필자의 어린 시절 그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단지 필자만의 생각이겠는가. 동행한 국제 옥수수재단의 김순권박사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그 역시 나처럼 시골 농촌 출신이고 그 시대에 살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았으니 말이다.

필자와 옥수수박사는 같은 고향 출신이고 시골 농촌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우리는 서로 흥금을 털어놓고 가끔 고향 이야기를 하곤 한다. 어린 시절 꿈과 희망을 안고 서울로 올라와 필자는 연구원이 되었고 김박사는 교수가



金 云 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장)

되지 않았는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우리 두사람 모두가 같은 동향인으로서 북한 농업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 둘이 태어난 곳도 동해안에 인접한 태백산맥 줄기의 끝자락인 한 시골의 바닷가와 인접한 산골마을이다. 그 곳은 태백산맥이 굽이쳐 오다가 한 줄기는 동으로 또 한 줄기는 남으로 갈라져 뺨어내리는데 이 산맥의 동쪽으로 뺨은 산맥이 바로 옛 천년 고도인 신라의 수도 경주와 마주친다. 불국사를 감싸고 있는 경주의 토함산을 거쳐 울산의 무룡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곳이 옥수수박사의 고향이고 이 무룡산을 거쳐 남쪽(南牧)의 동대산을 굽이쳐 방어진 반도에서 끝을 맺는 바로 그 길목이 필자가 태어난 곳이다.

흔히 북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고향이 이북출신이거나 그들의 부모가 북

한이거나 인척이 있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둘은 북한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다 6.25사변의 와중에서도 공산군과 싸워보지도 않았고 빨갱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철부지 해방둥이로서 당시에 입은 피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서 북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 어찌면 당당한 셈이다. 김순권박사와 나는 우리나라 농업과학의 메카인 수원의 농촌진흥청을 함께 다녔고, 지금도 비슷한 처지의 연구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찌면 공동운명체인지 모른다.

필자가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도무지 농업연구에 별로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했지만 그것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했겠지만 직업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다. 농학계가 유일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곳이 그 곳이니 모두들 살기 위해 그 곳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몇년간 그 곳에서 연구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 곳은 내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소위 노르자위 분야는 서울대학

필자와 김순권 옥수수박사는 같은 고향출신이고 사골 농촌학교 선후배 사이로
우리는 서로 흥금을 털어놓고 가끔 고향이야기를 하곤 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우리 두사람은 동향인으로서
북한 농업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출신들에게 모두 배정되고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만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도무지 연구할 맘이 내키지 않았다. 좀 심한 말로 찌꺼기만 나머지 출신들에게 배정되었으니 흥미가 날 리가 있겠는가. 당시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농진청의 분위기였고 그 곳의 수장들이 모두 그 대학 출신들이니 자연 후배들을 보살피 주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러하지 않겠지만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힘없고 돈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모두 최전방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었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농업경제로 전공비귀

하여튼 나의 수원에서의 5년간의 연구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공분야를 농학에서 농업경제로 바꾸었다. 오히려 이 분야가 나에게 적성이 맞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실감케 한다.

필자는 지난 5년간의 농진청 연구생활과 함께 삼십여년간 줄곧 농업관련 연구에 종사해왔지만 북한농업 연구처럼 흥미진진하고 연구에 재미를 붙여 몰두해본 일은 없었다. 사람은 자기가



북한의 평안남도 개천시 룡진 협동농장 관할 수확 후 옥수수 생산 현장

원하는 분야에 종사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목적인 바가 성취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난 9월 북한 방문시 10개 농사시험장을 두루 누비면서 옥수수 신품종 개발을 위해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품종 선발 작업을 한 옥수수박사도 흥미가 없었다면 과연 몸을 던져가면서 헌신적으로 그 사업에 몰두했겠는가.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보람된 일에 매진할 때가 가장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특히 과학을 탐구하는 청년들은 젊었을 때의 진로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필자의 교훈을 통해 뼈저리게 실감할 것이다.

최근 신문지상에서 4만여명이나 되는 고급 두뇌들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청춘을 불사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 이러한 두뇌들이 한국 과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얼마나 밝아지겠으며, 얼마나 빨리 선진국으로 치달렸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방황하게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고시 준비생들만의 탓이겠는가. 정부 정책의 잘못이 한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자성은 물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할 문제이다.

과학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는가. ①7